

4/24/22

설교 제목: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 장 1-18 절

-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절관주** 1 요 1:2
-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요 1: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 (요 1: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 (요 1: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절관주** 요 1:20
-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요 1: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 (요 1: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 1: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사 복음서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분리해서 '제 4의 복음서' 또는 '영적인 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이란 서로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예수님을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으로 묘사한데 반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딱 한 번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는 적어도 3 번 이상의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3 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들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8 가지의 표적(signs)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 보다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찬송시 같은 아름다운 문체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Logos(말씀)'로 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 명사 'Logos'로 설명해야만 했던 당시 상황적인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기독교는 유대 지경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에까지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AD 60 년경에 이미 10 만명의 헬라인들이 기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유대교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계 기독교인들에게는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심 끝에 유대계 기독교인과 희랍계 이방 기독교인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으로 '로고스(말씀)'라는 단어를 찾아냈고 급기야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었고 '로고스'는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고 빛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희랍인들에게도 '로고스'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씀'이나 '지혜'를 뜻하는 헬라어 '다바르'에 꼭 상응하는 단어였습니다.

희랍인들은 '로고스'가 만물의 에너지와 생명이 된다고 보았으며 '로고스'로 정의와 불의, 선과 악, 미와 추를 가릴 수 있는 이성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랍인들에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와 꼭 같은 성질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러기에 희랍인들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희랍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로고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성육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에 생명력과 지혜와 진리를 부여하는 로고스가 육신을 입은 예수님 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에너지요 진리요 선이요 미인 하늘의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희랍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고스'는 유대인들과 희랍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공통분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첫 마디부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씩 창조해 나가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천지 창조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 (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 (창 1: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 (창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 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 (창 1: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이 되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파괴가 사라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죽음의 세력이 정복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칠흑같은 어둠으로 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겨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빛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창궐한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곳마다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어둠과 죄악이 소멸됩니다.
빛되신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고 거짓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빛되신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캄캄한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빛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밝히 드러내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칠흑같은 어둠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지만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좋으면서 여전히 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고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요 1: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 1: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 1: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빛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그의 신발 끈도 풀지 못할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땅에 당신 백성에게 오셨건만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깨닫지 못하더라(5 절)' '알지 못하였고(10 절)'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11 절)'이라는 세 구절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며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 8: 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빛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